

■ 권명달 교수의 역사칼럼(55)

使卒爲之

사 출 위 지

끝까지 하라



권명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그 일이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 밝혀지면 어쩌야 할까? 이러한 경우라면 참으로 난감하다. 계속 추진하자니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그만두자니 그동안 들인 공력이 헛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임수가 발견된 이상, 속은 것이 억울하기도 하여, 하던 일을 작파(作罷)하고 양강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막상 양강을 하고 나면 잠깐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좀 전까지 속았지만 들인 공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니 이 또한 아깝다. 양강을 이룬 일시 마음이 후련할지는 모르지만, 하던 일을 작파하면 손해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도리어 생각을 바꾸어 나를 속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동안 들인 공력을 계속하여 성과를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른바 역발상(逆發想)이다.

이러한 예는 오늘날에도 눈에 띈다. 꽤 오래전부터 생수 산업이 성장하여 페트병이 넘쳐났다. 빈 페트병은 산더미 같이 쌓였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분해되기를 기다리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태워 버리는 것, 또한 부작용이 많아서 빈 페트병은 환경오염의 주범쯤으로 인식되었다. 빈 페트병이 그럴듯하게 생활 속으로 다가왔지만 마치 접점처럼 인류에 재앙을 안기게 되었을 때 이 페트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런데 얼마 전에 '페트병으로 지구를 살리는 옷 만든다.'라는 기사가 신문을 장식했다. 이를 수거하여 옷감을 만들어 가방, 운동화, 유니폼 등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으로 엄청난 이로움을 얻은 경우이다.

역사에서도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역발상을 통하여 엄청난 국력(國力)을 키운 이야기가 있다. 전국시대였다. 서쪽 지역에서 과거 중원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융(西戎)이라 알리며 자기들 세계에 끼워주지 않았던 진(秦)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위협을 느낀 나라는 중원의 한복판에 있었던 한(韓)이었다.

한(韓)을 일으킨 한건(韓虔)은 원래 진(晉)의 대부(大夫)였다. 그런 그가 세운 한(韓)은 같은 진(晉)의 대부(大夫)인 조적(趙籍), 위사(魏斯)와 더불어 한때 천하를 호령 하였던 자기들이 모시던 제후국 진(晉)을 힘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는 분명히 하극상을 벌인 것이니 처벌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주왕(周王)에게 제후(諸侯)로 승격시켜 달라고 하자 어찌 못하고 그 요구

를 들어줄 만큼 강한 나라였다. 그 위에 한(韓)은 명목만 남아 있는 주(周, 東周)가 있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황하 바로 남쪽의 중원지역의 중심부쯤 되는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한은 전통적으로 부유한 중심 지역에 있는 나라였다.

그러한 한 나라의 서쪽에 있는 진(秦)나라가 새로 부상하자 점차 위협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이 진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진을 약화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구상한 것이 '진(秦)이 국력을 소모해 약화'하게 하려고 마음먹고 고도의 속임수를 가지고 진(秦)이 수용할 만한 방법을 마련하였다.

마침 한(韓)에는 당시 천하에서 유명한 수리기술자(水利技術者)인 정국(鄭國)이 있었다. 그를 간첩(間諜)으로 만들고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서 진(秦)을 속이려고 진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을 동원했다. 드디어 정국은 진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설득하였다. '산으로 둘러싸인 진(秦)은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방법은 소금기가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서 그 소금기를 다 빼내어 옥토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역설(力說)한 것이다.

여기까지 진인(秦人)들을 설득한 정국(鄭國)은 계속해서 농사지를 땅을 만들기 위하여 운하를 파야 한다고 말하였다. 소금기가 가득한 흙에서 소금기를 다 빼버리면 운하를 만들고 그 물을 소금기가 가득한 지대로 흘려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운하 공사를 시작하면 진으로서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진은 피로해질 것이므로 정국은 진에 간첩으로 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정국은 구체적으로 경수(涇水)를 뚫어서 중산(仲山)에 운하를 만들어 북산(北山)을 아우르고 물을 동쪽으로 낙수(洛水)로 흘려보내자고 하였다. 기원전 246년 즈음에 이러한 운하를 파는 것은 정말로 대대적인 토목공사였다. 이 시기의 작인 도구를 생각해 본다면 이 사업은 온 국력을 들여야 하는 작업이었다. 진인들이 동의만 하면 정국이 간첩으로 진에 들어가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다. 그런데 진인들은 정국의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다. 한(韓)에서 정국을 진으로 들여보낸 목표가 달성되는 듯한 순간이었다.

하여간 진에서는 작업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창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즈음에 진(秦)에서 그제야 정국은 진(秦)을 피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韓)에서 파견된 간첩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정국이 간첩임이 들뜬 난 것이다. 진인(秦人)들의 처지에서는 몹시 화가 나서 정국을 붙잡아 들었다. 한의 간첩으로 와서 진을 피로하게 만들려고 했으니 죽여야 했다.

이때 정국이 제의하였다. '진인들이 화를 내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할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한에서 와서 진에 토목공사를 일으키게 한 결과 진이 국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한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겨우 몇 년 동안뿐인 것이고 그 몇 년만 한의 운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진의 처지에서 본다면 힘들기는 하지만 공사를 많이 진척시켰으니 공사를 완성하면 1만 년 동안 이로우면 될 것입니다.' 몇 년의 어려움을 참고 1만 년의 이익을 차지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제의였다.

역발상(逆發想)하면 정국의 말이 옳았다. 정국이 간첩으로 왔다는 것 때문에 그가 제의한 것을 모두 무시(無視)하는 것이 옳을까? 비록 간첩이 제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관중 지역을 옥토로 만든다는 꿈은 옳고, 이를 위하여 상당한 정도 공사로 진척되었으니 계속하는 것이 진(秦)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드디어 '끝까지 이를 실행하라.'라고 하였다.

진인(秦人)들은 '비록 한(韓)의 소위(所爲)는 껄껄하지만, 그에 대한 양강은 몇 년 뒤로 미루자. 그리고 그 뒤에 관중 지역에서 나오는 막대한 부(富)를 기초하여 한을 공격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드디어 이 공사가 끝났다. 그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땅 4만 경(頃)에 물을 대서 소금기를 빼버렸다. 그러자 땅 1무(畝)에서 6곡(斛) 4두(斗)씩이라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제 서쪽 산악 지대의 척박한 지역에 머물던 진(秦)은 부유(富裕)한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10년 뒤에 한(韓)은 진(秦)에 멸망하였다.

우리는 거의 매일 진인들이 정국의 간첩 행위를 발견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다. 그런데 역발상을 통하여 그것을 오히려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 이용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내게 나쁜 환경이 타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게 타친 환경을 내게 유리하도록 역발상으로 실행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 벌어져도 이를 돌려버리면 어려운 일은 없다.

능우회 2월 월례회 및 제13대 권오익 신임 회장 취임

안동권씨 능우회(陵優會) 주최 2월 월례회 및 제13대 능우회 권오익 회장 취임식이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2월 14일 오후 6시 30분 안동시 운안동 '제비원축산가든'에서 능우회 원 21명과 초대인 권오성 능곡회장, 권기형 전 직전회장, 권태형 부회장 등 모두 24명이 참석하였다.

권영호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시조 묘소 망배, 계묘년을 맞아 회원 간 상응례를 가졌다. 권오익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강원도 지방에는 눈이 내리고 있으며 차가운 날씨에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짝수 달에 모임 월례회는 오는 4월 울산에서 열리는 안동권씨 전국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비롯하여 6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동구릉에서 현덕왕후(顯德王后) 기신제(忌辰祭)에 참석, 8월 북회(伏會) 개최, 10월 안동 월영고 돌래길 걷기, 12월 송년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올 한해의 계획을 밝혔다. 권영호 사무국장은 3건의 경과보고와 재무보고를 하였다.

이어 초청인 권오성 능곡회장은 인사말에서 "능우회 선배님을 만나니 반갑다"며 "권태형 부회장의 꿈이 이뤄지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권태형 부회장은 능우회원을 향하여 큰 절을 하고 나서 "안동농협조합장에 출마하며 능우회 선배님의 울타리 안에서 능곡회가 자라고 있는데 앞으로 안동권씨에 누(累)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권오성 능곡회장은 권오익 신임 능우회장에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제13대 능우회 권오익 회장은 경북도안동의료원 총무과장을 끝으로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후 북야공파총회와 태사묘 사무국장을 각각 역임했으며 현재 대총회 안동사무국장, 안동향교 장의,



권오성(왼쪽) 능곡회장이 권오익 능우회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성균관 전의, 답수회 회원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때문에 능우회 제10, 11, 12대 회장들은 잦은 모임을 가지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 현재 능우회 회원은 33명이 있다.

이날 불고기를 곁들여 깨떡과 굴 등 푸짐한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가운데 권영준 2대 회장, 권오익 신임 회장, 권기형 직전회장 등 세 회장이 돌아가면서 건배 제의를 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 자리에서 권혁록 3대 회장은 최근 "청춘음악"에 합석, 앞으로 노인회와 불우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해주기 위한 청춘음악단을 만든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축사에서 "청춘의 꿈"을 노래하고 반응이 좋아 안코르가 쏟아지자 "흥도야 울지 마라"를 노래하여 신임 회장의 취임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물론 회원 간의 우의와 단합을 과시하기도 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안동권씨 부정공파 대구돈목회 창립 66주년 정기총회 개최



2023년 2월 4일 임춘일을 맞아 안동권씨 부정공파 대구돈목회 창립 66주년 정기총회가 대구시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40여 명의 파친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대구돈목회는 대구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부정공파 파친들의 친목 모임으로 1957년에 창립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온 유서 깊은 파친회 모임이다.

이날 행사는 권상주 대구중진회 사무국장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임원개선과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파친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뜻깊은 순으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개선팀 임원을 보면 고문에는 권영환(權寧煥, 34세), 권완오(權完吾, 35세) 전임 회장을 추대하고 회장에 권득원(權得源, 37세) 부회장에 권병표(權秉彪, 36세), 권순욱(權諄旭, 37세) 감사에 권세호(權世昊, 37세) 사무국장에 권용철(權容哲, 38세) 재무국장에 권기운(權奇雲, 36세) 씨를 선임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회원 확충을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많은 파친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 권득원 부정공파 대구돈목회 회장



제32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안내



안동권문(權門)의 성전(盛典)이요 자랑인 제32회 안동권씨 청장년 전국체육대회가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34개 지역 청장년회가 참여하는 본 대회에 전국 족친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우리 권문의 한마음 잔치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대회 개요-

- ♣ 일시 : 2023년 4월 23일(일요일) 오전 10시
- ♣ 장소 :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209)
- ♣ 주최 :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회
- ♣ 주관 : 안동권씨 울산청장년회
- ♣ 후원 : 안동권씨 대총회, 안동권씨 울산중친회
- ♣ 내용 : 개회식, 종목별 경기, 공연 및 장기자랑 등
- ♣ 대상 : 전국 34개 지역 중친회, 청장년회

<후원계좌 : 농협 352-1381-4861-43 예금주: 권혁환>
 <공고접수 : bjb03670@daum.net>
 대 회 장 : 권명달 : 010-3877-5674
 준비위원장 : 권혁환 : 010-3855-3610
 사 무 국 장 : 권응목 : 010-6476-8259

울산청장년회 체육대회 준비사무실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44-1(다운건설)
 문의 : 사무국 010-6476-8259

2023. 03. 01

안동권씨 울산청장년회 대회장 권명달